

나사렛 요셉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예배로 드린 사람)

마태복음 1:18 - 25

많은 사람들은 반복되는 삶에,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에 지쳐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겠다는 마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의 신앙인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음을 모를 때,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온화한 성품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성품은 그가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요셉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고, 피신을 하기 위해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믿음이 은 사람들은 이처럼 말씀을 단순하지만 확고하게 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임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보호자

믿음이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치여 살지만, 그 당시에도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기적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함과 책임감으로 살아가며 어린 예수님을 양육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도피 생활을 하고 땀을 흘리며 일해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매일의 일상을 책임감으로, 신실함으로, 자신의 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